

# 여수박람회 민자유치 이번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요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연거푸 불발됨에 따라 박람회 조직위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다시 민간 투자자 공모에 나섰다.

9일 조직위에 따르면 여수박람회의 핵심 시설인 아쿠아리움과 호텔 건립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민간투자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특히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아쿠아리움의 경우 총 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 폭을 종전 3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숙박시설 부지

가격도 예초 토지 예정가격 대비 80%로 인하하는 등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8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아쿠아리움의 경우 330억 원 가량의 국고가 지원되며, 숙박시설 토지의 경우 m<sup>2</sup>당 85만1천 원에서 68만 800원으로 인하된다.

조직위가 이번에 다시 의욕적으로 민자유치에 나선 것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투자의향을 접수하는 등 투자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될 아쿠아리움은 여수 신항 2 부두 인근 부지 1만2천 201m<sup>2</sup>에 총 사업비 829억 원을 투입해 수조규모 7천t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의 개발 개념, 관람객 수요 등을 감안해 수조규모 5천t 이상에서 규모 및 총 사업비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방식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조직위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이다.

호텔 등 숙박시설은 여수 신항 3 부두 인근 부지 2만4천145m<sup>2</sup>에 총 사업비 265억 원 이상을 투입해 객실 200실 규모의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가 사업성 등을 감안해 규모, 총 사업비,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업추진방식은 조직위가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준공한 뒤 분양·임대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조직위는 촉박한 사업일정을 고려해 올 하반기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2012년 2월 이전까지 대상 시설을 준공해 시범운영기간 등을 거쳐 2012년 5월 박람회 개최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아쿠아리움은 올해 2월 공모 때 국내 유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나 직접투자 규모 미달 등으로 탈락한 후 사업자를 찾지 못했고, 호텔도 인근에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상반기에 2차례나 공모를 했으나 어민 등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면서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누가 지방에 삽니까”



김지을  
경제부 기자

“한 두푼도 아닌데, 미리 분양받은 우리는 손해 본 것 아닌가요. 똑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일찍 들어왔다고 돈을 더 내는게 말이 됩니까. 미분양 난 뒤에 분양받은 사람처럼 임대세나 등록세 감면 혜택도 못받고 돈도 더 내고 우리가 ‘봉’입니까.”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천마을 3단지 입주자)

“수도권과 지방을 똑같이 양도세 감면한다고 하면 누가 지방 아파트 사겠습니까. 저라도 돈 싸들고 수도권 아파트 사겠습니다.” (주택업계 관계자)

요즘 광주·전남 주택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만을 토로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집을 파는 건설사도 ‘못 살겠다’며 아우성이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을 넘어 지방 출도에 대한 쓴소리가 가득하다. ‘뺏다방’이 등장하고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따른 실망도 대단하다.

국토해양부와 광주시가 파악한 5월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8천565가구. 건설사 분양 승인 취소 물량과 주택공사 미분양을 합치면 광주 전체 미분양 물량은 1만2천247가구다. 지난 1월 미분양 물량(1만2천997가구)보다 고작 750가구 줄어든 것뿐이다.

광주 최대의 택지라는 수완지구만해도 10가구 중 5~6가구는 비어있을 정도로 미분양이 많아 부동산 시장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전남도 비슷하다. 지난 5월 미분양 물량이 6천178가구로, 지난 4월(5천843가구)에 비해 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만 챙기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감면, 전매제한 완화 등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을 때만 해도 흑시나 했다.

정부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혜택을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했다. ‘뺏기지’ 따듯해지면 아랫목도 따뜻해진다는 ‘온돌효과론’까지 동원했다.

그런 꼴에 불과했다. 온돌효과론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수익성과 환급성이 좋은 수도권 아파트로 투자자들이 몰렸다.

세금까지 깎아주고 급기야 ‘질’ 개발하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했으니, 수도권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등 ‘악벌’을 받지 않을 리 만무하다. 정부가 시간차 공격할 시간도 주지 않고 수도권 규제를 모두 풀어버린 결과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이다. 열 손가락 깨물면 안아픈 손가락이 없다는데, 이쯤 되면 지방을 배려한 정책을 내놓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싶다. MB정부의 사전에 지방은 없는 것인가. /dok200@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주승용 의원 ‘여수산단 안전기술’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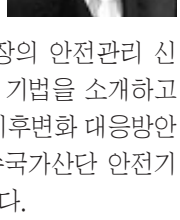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사천)은 9일 오후 전남대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국제회의실에서 석유화학공장의 안전관리 신기술 및 안전진단 기법을 소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여수국가산단 안전기술 세미나’를 가졌다.



에 대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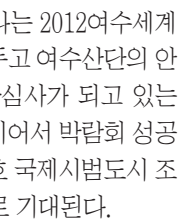
### ‘푸드뱅크’ 조례 제정 나서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나종천 의원(남구2)은 9일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관계자와 푸드뱅크 운영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여수산단의 안전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것이어서 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총 14곳의 푸드뱅크가 운영 중이며, 지난 3년간 광주시 공동모금회에서 연 300~4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해 왔다. /박지경·박정욱기자 jwpark@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사천)은 9일 오후 전남대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국제회의실에서 석유화학공장의 안전관리 신기술 및 안전진단 기법을 소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여수국가산단 안전기술 세미나’를 가졌다.

### 광주시, 기업체 등 95곳과 ‘광주그린액션협약’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기업체들과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모의 거래제를 추진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감사’를 육성·배출하는 등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의무감축 및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비해 기업체와 대규모 마트, 대학 등과 ‘광주그린액션협약’을 추진한다. 협약대상은 에너지를 2,000TOE 이상 사용하는 기업체 31곳, 백

화점과 대규모 마트 17곳, 15층 이상 대형빌딩 15곳, 대학교 15곳 등 모두 95곳이다.

시는 이들 기업체와 함께 오는 2015년까지 지난해 배출량의 10%를 감축하고, 감축한 배출량을 서로 매매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그린액션협약안’ 마련해 10일 오후 2시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시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현석기자 chadod@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참석을 포기하고 귀국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신장 위구르자치구 유혈사태 수습에 본격 나서면서 우루무치 시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중국 무장경찰들이 우루무치 시가지에서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삼엄한 경계 속 일상 되찾는 우루무치

### 쇼핑몰·상점들 영업 재개... 후진타오, 주동자 엄벌 지시

대규모 유혈사태로 민족 갈등 양상을 보였던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시는 무장병력의 삼엄한 경계 속에 9일부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우루무치시의 치안 확립을 위해 무장병력을 추가로 투입해 소요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쪽을 비롯한 우루무치 시민들은 더 이상의 대규모 소요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일상으로 서서히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돌아온 우루무치의 도심에는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지만 북부 외곽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5일 156명의 희생자를 낸 대규모 유혈 시위 발생 이후 문을 닫았던 대형 쇼핑몰과 상점들도 상당수는 셔터를 올리고 영업 재개를 준비했다.

한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신장 지역 대규모 유혈 시위사태 주동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9일 후 주석이 전날 밤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신장위구르자치구 시위사태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후 주석은 위구르족들의 분리독립 요구 시위를 수습하기 위해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참석을 포기하고 귀국길에 올라 8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 후 주석은 회의를 마치고 공표한 성명에서 “이번 7·5 사건의 정치적 배경은 국내외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폭력적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중국 최고의 권력기구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는 현재 신장지역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전체적인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후 주석은 “이번 사건을 모의하거나 배후조종한 핵심분자와 폭력을 행사한 범죄분자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백두산**

165-226-6070

**"고객 감사 세일"**

● 밀착 광주-MBC 문화방송 상동1062-226-6070으로 본인 별단을 확인하십시오.

**무안 ↔ 연길 직항(무안 공항 주차장 무료 이용)**

**7/25, 7/28, 8/1, 8/4, 8/8 (단, 5회 한정)**

구분	항공사	일정	출발시간	입항시간	항공요금
무안	대한항공	7/25, 8/1	14:00	17:00	₩ 799,000
		7/28, 8/4	14:00	17:00	₩ 799,000
	KLM	7/25, 8/1	14:00	17:00	₩ 799,000
		7/28, 8/4	14:00	17:00	₩ 799,000
연길	대한항공	7/25, 8/1	14:00	17:00	₩ 899,000
		7/28, 8/4	14:00	17:00	₩ 899,000
	KLM	7/25, 8/1	14:00	17:00	₩ 899,000
		7/28, 8/4	14:00	17:00	₩ 899,000
무안	대한항공	7/25, 8/1	14:00	17:00	₩ 1,099,000
		7/28, 8/4	14:00	17:00	₩ 1,099,000
	KLM	7/25, 8/1	14:00	17:00	₩ 1,299,000
		7/28, 8/4	14:00	17:00	₩ 1,299,000
연길	대한항공	7/25, 8/1	14:00	17:00	₩ 1,399,000
		7/28, 8/4	14:00	17:00	₩ 1,399,000
	KLM	7/25, 8/1	14:00	17:00	₩ 1,599,000
		7/28, 8/4	14:00	17:00	₩ 1,599,000